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ssessment Tool
for Child Friendly Cities*

홍승애(Seung Ae Hong)¹⁾

이재연(Jae Yeon Le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to diagnose the child friendly level in a given community. To develop such assessment tools, the literature related to this issue was reviewed, and in order to reflect Korea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198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104 parents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questionnaires were classified as objective tools and subjective tools by means of a content validity test by experts and a verification by preliminary survey. Objective tools are defined as those which are used by professionals to check facts based on laws and institutions. 20 objective questionnaires were created and completed. In contrast, subjective tools were used to check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parents on their community environments. Subjective tools were collected as the basis for the data for construct validity and was calculated to verify the validity. For this purpose, 432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11 and 18 and 201 parents living in Seoul, Daejeon and Hwaseong (n=633) were surveyed. Subjective tools, 33 questions in 6 areas were created and completed for parents an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30 questions in 5 areas were created and completed.

Key Words : 아동 · 청소년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아동 · 청소년친화지역사회(Child Friendly Communities), 아동 권리(Children's Rights).

* 본 연구는 2013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ung Ae Hong,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ngwon-Gil, Yongsan-Gu, Seoul, Korea
E-mail : childncity@naver.com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오늘날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은 성장 환경 악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저하를 직시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생활환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즉, 아동·청소년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 CFC)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온전히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UNICEF, 2004).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이상적인 아동기를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ICEF, 2005). UNICEF(1996)는 아동·청소년은 도시 환경 속에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존재이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현재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 존속을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실천하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의 친화 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세상에서 아동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동플랜’을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의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관련 정책들을 아동·청소년친화적 관점에서 재조정하고 있으며(UNICEF, 2001), 유럽 국가들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유럽연합(UNICEF

National Committee : Natcoms)을 구성하여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한 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UNICEF, 2011).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친화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Barttle, 2002). 특히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전략 수립의 첫 단계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활용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중·단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Chawla, 2002; UNICEF, 2010; UNICEF, 2011).

최근 우리나라 지역사회도 성장 지향적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이 보다 살기 편하고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제 1기·제 2기 꿈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Lee et al., 2010),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eongbuk-Gu, 2011). 또한 여성가족부는 화성·동탄 신도시 개발 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를 이끌어내는 등 아동·청소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이렇듯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전체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방면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평가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이 점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친화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지표(Chawla, 2002; UNICEF, 2010; UNICEF, 2011)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표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우리나라 지역사회 여건과 아동·청소년이 처해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들(Kim *et al.*, 2008; Mo *et al.*,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esearch center for Social welfare, 20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 Foundation, 2009; Seo *et al.*, 2003; Lim *et al.*, 2011; Choi *et al.*, 2006; KCCR, 2001)은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정책 방향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사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공간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지방정부구조까지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표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하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친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친화적 사회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건을 탐색하여 그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현황과 성장환경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변화 상황에 대해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계획 수립 및 세부목표 추진을 위해서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수준은 적절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면접 조사

평가지표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1세-18세 아동·청소년 198명, 초·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 104명이였다. 조사 지역은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¹⁾, 대도시인 서울시 3개 자치구(서초구, 성북구, 서대문구)와 중·소도시인 대전시 2개 자치구(서구, 중구), 화성시 2개 자치구(동탄

동, 반송동)에서 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 방식은 학교에서 소그룹 집단 면접하거나, 학교 이외의 장소(놀이터, 교회, 도서관, 학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면접하였다. 소그룹으로 면접한 아동·청소년은 87명, 개별 면접한 학생은 111명이다. 부모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초·중·고등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N = 302)

Characteristics			Location		
			Seoul	Dae-Jeon	Hwas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x	Boys	30 (46.1%)	7 (70%)	10 (40%)
		Girls	35 (53.8%)	3 (30%)	15 (60%)
	Age	11yrs	8 (12.3%)	2 (20%)	0 (0%)
		12yrs	27 (41.5%)	5 (50%)	8 (32%)
		13yrs	30 (46.1%)	3 (30%)	7 (68%)
	Total	100(100%)	65 (100%)	10 (100%)	25 (100%)
Middle · High School Children	Sex	Boys	29 (46.0%)	6 (40%)	12 (60%)
		Girls	34 (53.9%)	9 (60%)	8 (40%)
	Age	14yrs	18 (28.5%)	3 (20%)	7 (35%)
		15yrs	21 (33.3%)	6 (40%)	8 (40%)
		16yrs	14 (22.2%)	3 (20%)	0 (0%)
		17yrs	12 (19.0%)	3 (20%)	5 (25%)
18yrs	8 (12.6%)	0 (0%)	4 (20%)		
Total	98(100%)	63 (100%)	15 (100%)	20 (100%)	
Total	198(100%)	128 (64.6%)	25 (12.6%)	45 (22.7%)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arents	Sex	Boys	2 (6.4%)	0 (0%)	2 (20%)
		Girls	29 (93.5%)	5 (100%)	8 (80%)
	Children's Age	11yrs	8 (25.8%)	4 (26.6%)	0 (0%)
		12yrs	10 (32.2%)	4 (26.6%)	5 (50%)
		13yrs	13 (41.9%)	7 (46.6%)	5 (50%)
Total	56(100%)	31 (100%)	15 (100%)	10 (100%)	
Middle · High School Children's Parents	Sex	Boys	2 (6.6%)	0 (0%)	2 (16.6%)
		Girls	28 (93.3%)	6 (100%)	10 (83.3%)
	Adolescent's Age	14yrs	5 (16.6%)	0 (0%)	6 (50%)
		15yrs	8 (26.6%)	3 (50%)	4 (33.3%)
		16yrs	10 (33.3%)	3 (50%)	2 (16.6%)
17yrs	7 (23.3%)	0 (0%)	0 (0%)		
Total	48(100%)	30 (100%)	6 (100%)	12 (100%)	
Total	104(100%)	94 (65.7%)	16 (11.1%)	53 (37.0%)	

1) 국토종합개발계획기준에 따라 인구 5만에서 100만 사이의 도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한 시급도시)를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있다(Lee, 2006).

서울시에서 94명, 대전시 35명, 화성시 34명을 개별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본 조사에 앞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60명,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5명의 총 8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11-18세 아동·청소년 432명, 부모 201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1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선정 이유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 형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면접조사와 동일하게 군집 표집 하였으며, 서울시 3개 자치구(동작구, 용산구, 강서구) 303명, 대전시 2개 자치구(유성구, 중구) 77명, 화성시 2개 자치구(동탄동, 남양동) 80명을 선정하였다. 부모의 경우 조사에 동의한 각 학교 학생의 부모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 111명, 대전시 41명, 화성시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 연구 절차

1) 면접 조사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UNESCO (2002)의 GUIC 프로젝트 인터뷰 가이드를 바탕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 중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What do you think are the most positive features of your city, from a young person’s perspective?), ‘부정적’인 요소(negative features?),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What makes a city a good place in which to grow up?)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면접 질문을 중요요소뿐만 아니라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도 함께 탐색하였는데, 이는 면접자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정확하게 중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본 평가지표의 구성 요소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의 결과만 반영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진행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일과가 끝난 후 학년별로 4-5명을 모아 집단 면접을 하거나, 놀이터, 공원, 학원, 성당, 교회 등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을 또래끼리 4-5명을 모아 그룹으로 또는 1대1로 인터뷰를 하였다. 최근 학교 내에서 수업외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학교에서 면접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 중 학교에서 집단 면접으로 진행한 아동·청소년은 87명이며, 학교이외 장소에서 면접을 한 인원은 111명이다.

부모의 경우 초등, 중등, 고등으로 연령을 구분을 지어 각 연령별로 4-5명의 집단을 지어 부모의 집에서 진행하거나, 놀이터, 어린이집, 교회, 성당 등에서 만나 4-5명을 모아 그룹으로 또는 1대1로 인터뷰 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개별 면접을 하였다. 집단 면접 한 부모는 총 64명이며, 개별 면접을 한 부모는 총 79명이다. 조사시간은 평균 20-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0일부터 7월30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보조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N = 718)

Characteristics			Location			
			Seoul	Dae-Jeon	Hawsung	
Preliminary survey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x	Boys	15 (25.0%)	-	-
			Girls	10 (16.6%)	-	-
		Age	12yrs	25 (41.6%)	-	-
			Boys	17 (28.3%)	-	-
	Middle · high school children	Sex	Girls	18 (30.0%)	-	-
			15yrs	20 (33.3%)	-	-
		Age	17yrs	15 (25.0%)	-	-
		Total		60 (100%)		
	Parents	Sex	Female	25 (100%)	-	-
	Total			85 (100%)		
Survey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x	Boys	72 (47.6%)	11 (42.3%)	17 (47.2%)
			Girls	79 (52.3%)	15 (57.6%)	19 (52.7%)
		Age	11yrs	47 (31.1%)	8 (30.7%)	12 (33.3%)
			12yrs	59 (39.0%)	8 (30.7%)	9 (25.0%)
			13yrs	45 (29.8%)	13 (50%)	15 (41.6%)
			Total	213(100%)	151 (100%)	26 (100%)
	Middle · high school children	Sex	Boys	71 (46.0%)	10 (45.4%)	24 (54.5%)
			Girls	81 (53.2%)	12 (54.5%)	20 (45.4%)
		Age	14yrs	41 (26.9%)	2 (9.09%)	2 (4.50%)
			15yrs	27 (17.7%)	8 (36.3%)	10 (22.7%)
			16yrs	22 (14.4%)	9 (40.9%)	11 (25.0%)
			17yrs	35 (23.0%)	2 (9.09%)	9 (20.4%)
		18yrs	28 (17.7%)	3 (13.6%)	12 (27.2%)	
	Total	219(100%)	153 (100%)	22 (100%)	44 (100%)	
	Total		432(100%)	303 (65.8%)	48 (11.1%)	80 (17.3%)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arents	Sex	Boys	3 (4.41%)	2 (12.5%)	1 (4.76%)
			Girls	65 (95.5%)	10 (62.5%)	20 (95.2%)
		Age	11yrs	11 (16.1%)	6 (37.5%)	4 (20.0%)
			12yrs	25 (44.1%)	6 (37.5%)	9 (40.0%)
			13yrs	27 (39.7%)	4 (25.0%)	8 (40.0%)
Total			100(100%)	63 (100%)	16 (100%)	21 (100%)
Middle · high school children's parents		Sex	Boys	2 (4.16%)	2 (8.0%)	1 (4.34%)
			Girls	46 (95.8%)	23 (92.0%)	22 (95.6%)
		Age	14yrs	9 (18.7%)	5 (20.0%)	4 (17.3%)
			15yrs	10 (20.8%)	5 (20.0%)	5 (21.7%)
	16yrs		11 (22.9%)	6 (24.0%)	6 (26.0%)	
	17yrs		9 (18.7%)	5 (20.0%)	6 (26.0%)	
	18yrs	9 (18.7%)	4 (16.0%)	2 (8.69%)		
Total	101(100%)	48 (100%)	25 (100%)	23 (100%)		
Total		201(100%)	111 (55.2%)	41 (20.3%)	44 (21.8%)	

연구자(아동복지학 석사) 1인이 기록 및 녹음 등을 담당하였다. 아동·청소년 그리고 부모의 면접은 사전에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진행하였다.

2)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본 조사에 앞서 문항 이해의 적절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11-18세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수정하였으며 지표의 내용을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모두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능력이 다른 대상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보충설명을 하면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부모의 경우 담임교사가 아동·청소년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여 부모가 작성하도록 한 후 다시 아동·청소년을 통해 교사가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총 46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부모는 총 2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총 432명, 부모 총 201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18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구인 타당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7.0을 사용하였으며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통해 추정하였다. 요인 수효 결정은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요인 수 결정 후 사각회전 방식(Oblimin rotation)을 사용하여 최종 요인을 산출하였다. 또한 문항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양적 데이터 및 질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혼합 평가모형(mixed method evaluation)을 적용하였다(Tashakkori & Teddlie, 200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양적 데이터를 먼저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데이터를 혼합한 것이다.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척도의 구성 요인

1) 선행 지표 검토에 의한 구성 요인 탐색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문헌 및 선행지표 고찰을 통해 범주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Chawla, 2002; Gearin, 2008; Hwang & Kim, 2011; Horelli, 2007; NSW, 2008; UNICEF, 2010; UNICEF, 2011; Zero Population Growth, 2001),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평가지표(Bradshaw, Hoelscher & Richardson, 2006; KCCR, 200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esearch

center for Social welfare, 2006; OECD, 2009; UNICEF, 2007),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종합평가 지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를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평가지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영역과 그 요소를 참고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종합평가 지표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이 많은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지표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UNICEF(2010) 지표의 구성 요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조항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 현황과 생활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용이다. UNESCO(2002)의 지표는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UNICEF Natcoms(2011) 중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기반하고 있으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 지표들 보다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재분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조직체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의 Horelli(2007), 미국 Gearin(2008)는 아동, 청소년, 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환경, 아동·청소년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건을 탐색하여 그 내용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지표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

과 총 8개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평가 지표의 공통영역은 ‘건강’, ‘안전’, ‘보호’, ‘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지방정부구조’로 도출되었다. 또한 총 5개의 아동의 삶의 질 관련 평가지표의 공통영역은 ‘경제적 상황’, ‘아동의 관계(가족형태, 부모, 또래)’, ‘건강’, ‘안전’, ‘보호(위험행동)’, ‘교육’, ‘사회/시민참여’이며, 지방자치단체 복지 평가의 영역은 ‘보호’, ‘보육’이다. 따라서 3개 축 지표간의 공통영역은 ‘건강’, ‘안전’, ‘보호’, ‘교육’, ‘참여’이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기본 권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와 아동 삶의 질 관련 지표에서 도출된 공통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구성요소를 분석하면 ‘건강’영역에서는 보건, 영양, 건강행동, ‘안전’영역에서는 유해환경, 교통 환경, 주거환경, ‘보호’영역에서는 보호체계, ‘교육’영역에서는 교육의 기회, 물리적 환경, 학교문화, 교육자원, ‘놀이와여가’영역에서는 놀이와여가 기회, 놀이와여가 자원, 놀이와여가 환경, ‘사회참여’영역에서는 참여활동, ‘지역사회환경’영역에서는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유대감, ‘지방정부구조’영역에서는 정부구조로 분석되었다. 구체적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한 교통환경’, ‘자전거 도로’, ‘교육 시설’, ‘안전한 식수’, ‘안전한 주거환경’,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공원과 녹지 공간’ 등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 ‘지역주민의 권리 옹호활동’, ‘지역주민의 유대감’ 등 지역사회의 성인의 태도, 지방정부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 등이 기존 지표와 달리 중요한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선행지표 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친화적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아동 권리협약의 4가지 이념을 기반으로 구성요소를 선정하였으며 둘째, 본 연구에서 정의 내린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즉,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해 왔던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건강 환경’, ‘안전과 보호 환경’, ‘교육 환경’, ‘놀이와 여가 환경’, ‘사회 참여’, ‘정책 기반’ 6개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문항도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선행지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친화 지역사회 관련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 즉,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Lee, 2007), 가족친화 지역사회(Hong *et al.*, 2007), 고령친화도시(Jung *et al.*, 2008; Kim *et al.*, 2008), 여성친화도시(Yoo *et al.*, 2010), 서울시 꿈나무프로젝트(Lee *et al.*, 2008)의 정책내용과 실천방안도 참고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영역과 상응하는 구체적 문항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6개 영역의 78개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2) 면접 조사에 의한 구성 요인 탐색

평가지표 구성요인 탐색을 위해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여건과 정책수요자의 실질적 욕구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를 질문하였으며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평균 4-5개 도출 되었으며, 보조 연구자와 전문가 1인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 유사

한 내용, 모호한 내용 등을 조정하고 통합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선행연구(Ko, 2012; Lee & Kang, 1997; Lee & Lee, 1998)를 참고하여 응답 내용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항목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그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그 결과 ‘건강과 의료서비스’, ‘안전과 보호 환경’, ‘교육제도와 학교환경’, ‘놀이와 여가 활동’, ‘사회참여 와 이웃환경’, ‘환경개선’의 총 6개 영역으로 응답이 구분되었다. 대상자별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놀이 공간(34.0%)이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31.9%), 안전한 대중교통(23.4%), 학교 주변 안전망(27.6%), 공기, 물, 쓰레기 정비 등 깨끗한 환경(27.6%)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 유흥업소, 모텔 등과 학교, 집주변 유해환경 정비(45.2%), CCTV, 등하교 도우미, 경찰, 안전지킴이 등 학교주변 안전(30.1%),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24.5%), 안전한 대중교통(22.6%), 의료 서비스(20.7%), 맑은 공기, 물, 쓰레기 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2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주변 안전(29.4%), 청소년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22.6%),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23.4%),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자원(23.4%), 의료 서비스(23.4%), 깨끗한 도시환경(23.4%)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33.3%), 유흥업소, 모텔 등과 학교, 주거지와 격리구획(29.4%),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25.4%), 녹지 공간 및 공원(23.5%), 가까운 병원, 응급시설 등 의료 서비스(21.5%), 깨끗한 도시환경(21.5%)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부모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교 주변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30.1%), 연령에 맞는 놀이 공간 확충(26.4%), 유흥업소와 집주변 유해환경 정비(22.6%), 안전한 대중교통(20.7%), 병원, 보건소, 응급시설 등 의료 서비스(20.7%)순이며, 중·고등학생 부모의 경우 유흥업소와 집주변 유해환경 정비(34.1%)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의 유해매체 개선(28.6%),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26.8%), 다양한 운동시설 및 체육시설(26.8%), 병원, 보건소, 응급시설 등 의료 서비스(21.9%), 청소년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21.9%)순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상자별로 상위 20%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유목한 결과, ‘건강 및 의료서비스’영역의 1)의료 서비스, ‘안전과 보호 환경’영역의 2)안전한 대중교통, 3)학교주변 안전망, 4)유흥업소와 집주변 유해환경 정비, 5)청소년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 6)유해매체 개선, ‘놀이와 여가 활동’영역의 7)자유롭게 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놀이 공간, 8)연령에 맞는 놀이 시설이 있는 공간 9)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10)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용시설, 11)녹지 공간 및 공원, ‘환경개선’영역의 12)깨끗한 도시환경의 12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3) 예비문항 선정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에 따라 그 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평가지표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둘째, 아동·청소년친화적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발전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선정하였

다. 셋째, 평가나 진단 단계를 넘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에 상응하는 요소를 선정하였다. 넷째,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정책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발 방향을 근간으로 지표의 예비문항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와 면접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내용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의 ‘안전과 보호’영역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면접 조사 결과의 ‘안전과 보호 환경’ 영역에서 유해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이 도출된 ‘유흥업소와 집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격리’, ‘청소년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을 반영하였고, ‘놀이와 여가’영역에서는 놀이 공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이 도출된 ‘연령에 맞는 시설이 있는 놀이 공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공간’,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반영하였다. 또한 면접 조사 결과의 ‘환경 개선’ 영역에서 도출된 ‘쓰레기, 공기오염, 유해물질 등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욕구는 선행지표 탐색에서 도출된 ‘안전과 보호환경’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양적 자료의 ‘안전과 보호 환경’ 영역에는 주거환경, 생태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하여 반영한 것이다.

면접 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보다 내용이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 특히 12개 항목 중 ‘학교 주변 안전망’은 학교주변 교통 사고율이 높으며 아동대상 유괴, 성범죄 등 각종 범죄율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유흥업소와 집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유흥업소와 학교, 주거지가 무분

별하게 존재되어 있어 성인들의 문화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의 합법적 운영’도 우리나라의 불법 운영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공간’은 놀이터 이외에는 마땅히 놀 공간이 없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도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6개 영역의 90개 1차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다.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척도의 타당화

1) 내용 타당도

선정된 예비 문항은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가에게 2차에 걸쳐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예비조사도 실시하였다.

첫째, 1차 검토에서는 전문가 15명이 문항의 적절성을 3점 척도로 평정 하였으며 2점 이상 점수가 나온 문항만 선택하였다. 그 결과 ‘금연 구역’, ‘교육자료 제공’, ‘대중교통 정보’, ‘정책 전달체계’, ‘아동·청소년관련 전문 인력’ 등 21개를 삭제하여 총 69개 문항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2차 검토에서는 전문가 3인이 문항의 난이도, 표현 등을 검토하였으며, 평가대상자를 아동·청소년, 부모로 구분하여 대상자별로 적정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10대 출산 교육, 에이즈 예방교육’ 등은 ‘성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통합하고, ‘성인의 감시 없이 아동·청소년끼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다’ 문항과 같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용 설문지는 ‘부모교육을 위한 상담기관’, ‘필수예방접종 여부’ 과 같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문항

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69개 문항에서 아동·청소년용은 55개, 부모용은 58개로 변경되었다.

셋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은 아동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에 적당하다’ 등 표현이 애매한 내용 총 3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주변 안심 먹거리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등 구체적 정보를 모르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문항은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내용 타당도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과 함께 법과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어 전문가 집단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문항과 예비 조사 시대다수의 응답자가 답변을 하지 못했던 문항을 분석하여 20개 문항은 객관지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환경’ 영역의 ‘학교급식 모니터링’, ‘학교주변 안심 먹거리 구역’의 2문항, ‘안전과보호환경’ 영역의 ‘장애아동·청소년 편의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의 8문항, ‘교육환경’ 영역의 ‘장애아동통합교육’의 1문항, ‘놀이와 여가환경’ 영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의 5문항, ‘사회참여’ 영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주민연대자율 방법대’ 등의 2문항, ‘정책기반’ 영역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등의 3문항 등 6개 영역의 20개 문항이다.

주관지표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인식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부모용의 경우 38개, 아동·청소년용의 경우 3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주관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구성 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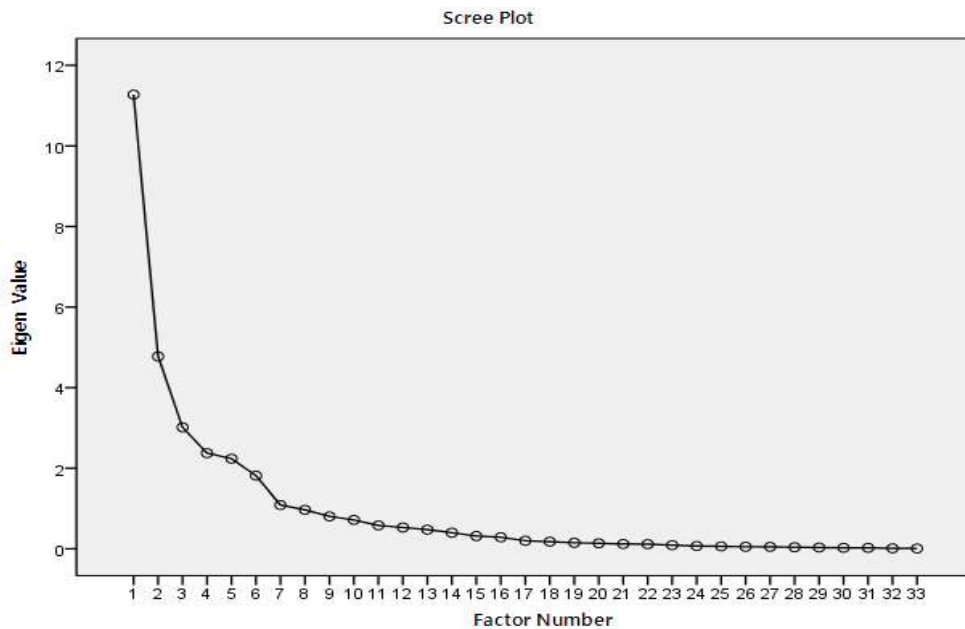
(1) 부모용

주관지표로 선정된 부모용 3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 간 상관관이 너무 높거나(.80이상),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문항 중 건강 환경 3번, 놀이와 여가 환경 5번은 삭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KMO값이 .67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게 적절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추출은 고유 값(eigen value) 1 이상,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누적백분율 50% 이상, 그리고 요인 적재 값 .30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크리 검사에서 6개 요인의 고유치와 7개 요인의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후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적 분산율 71.12%에 해당하는 요인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부모용 스크리 도표는 Figure 1과 같다.

6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여 최종 구조를 살펴보았다. 직각회전(varimax)에서는 자료에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만 이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최종요인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이 0이라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Figure 1> Scree plot for parents

<Table 3> Factor analysis for the items of Child Friendly Cities Rating Scale for parents (N = 201)

Name of factor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City organization 1	.951	-.078	-.020	.206	.158	-.101
City organization 2	.737	.072	.179	.064	.098	.132
City organization 3	.661	.207	.171	.100	.132	.054
Health and social services 2	-.060	.988	-.016	.024	.030	-.033
Health and social services 5	-.063	.971	.029	.049	.044	-.027
Health and social services 6	-.038	.938	-.041	-.034	-.028	.022
Health and social services 11	.125	.869	.007	-.030	-.066	-.045
Health and social services 4	.076	.635	.037	-.034	.163	.155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2	-.130	.036	.910	0.64	.209	-.046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6	.118	-.049	.881	-.044	-.099	-.066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4	-.006	-.012	.876	.123	.059	.030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3	.113	.026	.845	.016	-.052	-.029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7	.139	-.017	.803	-.094	-.302	.223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2	.025	.114	.795	-.063	-.042	.049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1	-.098	.026	.585	.171	.342	-.044
Educational environments 3	.269	.024	.081	.874	.008	-.213
Educational environments 2	.225	.034	.205	.839	-.101	-.136
Educational environments 4	-.032	.172	.147	.549	-.087	.137
Educational environments 5	.301	-.172	-.047	.527	-.278	.326
Educational environments 6	-.104	-.153	-.088	.526	.279	.088
Educational environments 7	.077	-.090	-.014	.521	-.024	.207
Social participation 2	.054	.098	.062	.047	.824	.002
Social participation 3	.135	.074	.240	-.134	.740	.111
Social participation 1	.242	.113	-.113	.042	.725	.190
Social participation 6	.376	.158	.021	-.099	.504	.201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2	-.027	.075	-.012	-.013	.149	.717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12	.138	.115	-.042	.066	.134	.697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7	.195	-.024	.188	-.175	.036	.660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4	-.032	.042	-.048	.144	-.048	.651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11	.061	.220	.190	-.209	.013	.609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3	-.190	.088	.183	.278	.133	.537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15	.057	.043	.090	.347	-.359	.436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17	.248	.116	.091	.142	-.009	.404
Eigenvalue	5.537	6.990	4.218	2.314	2.169	2.243
Pct of Var(%)	16.778	21.181	12.783	7.012	6.572	6.796
Cum Pct(5)	16.778	37.960	50.742	57.754	64.326	71.122
Number of item	5	3	7	4	6	8

<Table 4> Correlations of city of friendliness total scores with friendliness factor and cross correlations of friendliness for parents (N = 201)

Factor	City organiza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s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Educational environments	Social participation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City organization	1.000					
Health and social services	.161	1.000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330	.327	1.000			
Educational environments	.226	-.061	.189	1.000		
Social participation	.115	.245	.122	.023	1.000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319	.234	.335	.270	.126	1.000

않아 앞서 추정된 요인수효에 따라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최종 형태행렬(pattern matrix)은 Table 3, 영역별 요인 상관관은 Table 4와 같다.

이상의 결과 부모용 평가지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건강 환경 5문항, 안전과 보호 환경 8문항, 교육 환경 6문항, 놀이와 여가 7문항, 사회참여 4문항, 정책기반은 3문항의 총 33문항이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추출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933로 나타났으며 건강 환경 영역이 .958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과 보호 환경 영역이 .8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80이상의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용은 최종 33문항이 도출되었으며 삭제된 3문항 중 안전과 보호 환경영역의 14번의 '집 주변에 성인용 광고 전단지 길 거리에 널려 있지 않으며 성인용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와 15번 '집 주변은 유해업소와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비슷한 내용을 묻기 때문에 14번은 삭제하고 그 내용을 15번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놀이와 여가 환경 영역에서는 14번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의 문항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문항과 달리 전체적인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이라 응답의 분포가 크게 나타났다.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4번 '아동·청소년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모가 직접 참여 활동하는 것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응답의 분포가 크게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용

주관지표로 선정된 아동·청소년 용 35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 간 상관관계가 너무 높거나(.80이상),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문항 중 건강 환경 2번, 안전과 보호환경 10번은 삭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67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추출은 고유 값(eigen value) 1 이상,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누적백분율 50% 이상, 그리고 요인 적재 값 .30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청소년용 32문항은 스크리 검사에서 4개 요인의 고유치와 5개 요인의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이후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적 분산을 78.490%에 해당하는 요인수를 5개로 결정하였다. 아동·청소년용 스크리 도표는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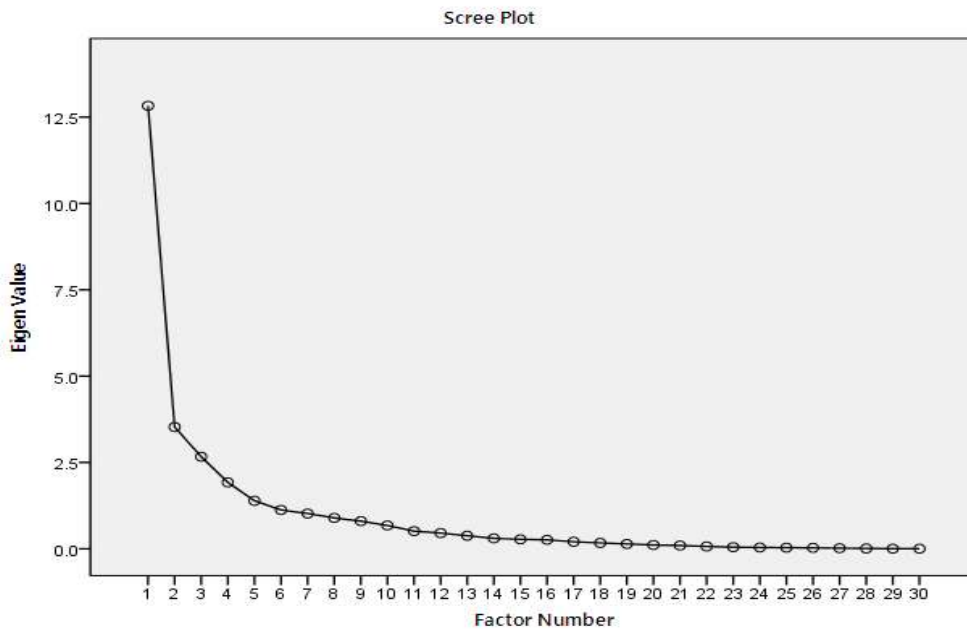
5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여 최종 구조를 살펴보았다. 최종 형태행렬(pattern matrix)는 Table 5, 영역별 요인 상관은 Table 6과 같다.

이상의 결과 아동·청소년용 평가지표는 최종적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건강 환경 3문항, 안전과 보호 환경 8문항, 교육 환경 6문

항, 놀이와 여가 7문항, 사회참여와 정책기반 영역이 합쳐진 영역은 6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참여와 정책기반 영역은 ‘사회 환경’으로 재 명명 하였다.

각 문항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948로 나타났으며 놀이와 여가 환경 영역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환경 영역이 .7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80이상의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용은 사회참여와 정책기반 영역이 합쳐져 나온 것은 부모보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내용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적어 이에 대한 응답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삭제된 문항은 놀이와 여가 환경 9번으로 ‘놀이와 여가를 위한 지역사회



<Figure 2> Scree plot for children

<Table 5> Factor analysis for the items of Child Friendly Cities Rating Scale for child (N = 432)

Name of factor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Educational environments 5	.843	-.096	.379	-.263	.069
Educational environments 3	.746	.127	-.055	.075	.249
Educational environments 2	.704	-.235	.052	.381	.145
Educational environments 4	.698	-.082	.220	.288	.020
Educational environments 6	.634	.405	-.305	.296	.233
Educational environments 7	.522	.175	.082	-.027	.304
City organization 2	.040	.810	.062	-.015	-.117
Social participation 1	-.124	.776	.065	-.197	.095
Social participation 2	.129	.737	.094	.036	-.046
Social participation 1	-.388	.734	.146	.350	.170
Social participation 3	.234	.547	.089	.341	.214
City organization 1	-.040	.459	.149	.345	.302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4	-.199	.303	.718	.081	.081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2	.198	.080	.655	-.138	.253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3	-.132	-.093	.621	.052	.348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1	.169	-.043	.563	.048	.218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7	.108	.193	.537	.094	-.075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5	.111	.067	.498	.165	-.063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6	.080	.182	.435	-.017	.052
Health and social services 1	-.120	-.027	-.022	.765	.022
Health and social services 4	.266	.035	.114	.757	-.164
Health and social services 5	.216	.059	.247	.420	.195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5	-.016	-.002	.099	.008	.912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8	-.089	.086	.107	.046	.834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2	.361	.345	-.398	-.194	.729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6	.161	-.315	.186	.280	.673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3	.267	.072	.102	-.085	.613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9	.230	.120	.344	.052	.514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12	.322	-.071	.280	.090	.477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4	.156	.010	.133	-.063	.413
Eigen value	42.759	11.756	8.891	6.409	4.634
Pct of Var(%)	28.310	10.938	17.231	6.534	5.478
Cum Pct(5)	28.310	39.247	56.478	63.012	78.490
Number of item	6	7	8	3	6

<Table 6> Correlations of city of friendliness total scores with friendliness factor and cross correlations of friendliness for child (N = 432)

Factor	Educational environments	Social environments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Health and social services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Educational environments	1.00				
Social environments	.107	1.00			
Play and leisure environments	.274	.248	1.00		
Health and social services	.202	.150	.317	1.00	
Safety and protection environments	.478	.299	.410	.164	1.00

환경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로 응답자의 개인적인 인식을 묻는 내용에 따라 응답의 분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사회참여 5번 '지역사회 주민들은 인종, 문화,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 없이 서로 잘 지낸다' 로 개인적 경험에 따라 응답의 경향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또한 정책기반 2번 '시청과 구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아동·청소년이 정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사건·사고에 따른 사후처방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면접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여 90개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비문항은 2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와 예비 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 문항을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분류하였다. 객관지표는 법과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내용이며 6개 영역의 20개 문항이다. 주관지표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인식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구인 타당도 검증 결과 부모용은 건강 환경, 안전과 보호 환경, 교육 환경, 놀이와 여가 환경, 사회참여, 정책기반의 6개 영역의 33개 문항, 아동·청소년용은 사회참여와 정책기반을 합쳐 사회 환경으로 재명명하여 5개 영역의 30개 문항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평가 지표의 신뢰도 산출 결과 부모용은 신뢰도계수가 .933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용은 .962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환경'은 아동·청소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

강을 누리고 균형 잡힌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안전과 보호 환경’은 생명과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다. ‘교육 환경’은 아동·청소년이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다. ‘놀이와 여가 환경’은 아동·청소년이 놀이와 여가를 즐기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 및 공간이다. ‘사회참여’는 아동·청소년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권리를 존중받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다. 정책기반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다.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는 아동·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발달 관련 지표(KCCR, 2001; Kim *et al.*, 20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esearch center for Social welfare, 20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 Foundation, 2009; Mo *et al.*, 2010; Seo *et al.*, 2003)가 아동·청소년 복지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다. 그 결과 ‘건강’, ‘안전’,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놀이와 여가’, ‘사회참여’, ‘정책기반’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환경이 측정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친화도

시를 재 개념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Bartlett, 2002; Chawla, 2002; Horelli, 1998; Malone, 2004; Newell, 2003; Riggio, 2002; Prezza, 2004; UNICEF, 1996)와도 일치한다.

최종 도출된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를 선행연구의 내용과 비교·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에 개발되어 각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UNICEF(2010)의 지표 보다는 그 구성내용이 축소되었다. UNICEF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아직 덜 갖추어진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주거환경, 학교환경, 남녀 차별과 같은 인권 침해 상황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이므로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우리나라의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Gearin, 2008; Horelli, 2007; NSW, 2008; UNICEF, 2011) 보다는 구성요소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을 준거 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정책영역별로 그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교통 환경 및 시설, 주거 환경, 유해환경, 복지 정책, 건강 의료 서비스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면접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욕구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구성내용이 보다 포괄적인 것이다.

둘째, 아동, 청소년, 부모의 면접 결과 ‘의료 서비스, 안전한 교통,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유해환경 정비, 녹지 공간, 깨끗한 환경’이 갖추어진 사회를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Lynch(1997)에

의해 수행된 유네스코 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2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은 자유로운 이동(independent mobility), 신체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 녹지 공간, 기초서비스, 안전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wla, 2002; Horelli, 1998). 이러한 결과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환경은 비슷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의 연구 결과(Haikkola *et al.*, 2007)와 비교해보면, 핀란드 헬싱키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환경, 놀이터, 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유스 센터, 지역주민, 친구와 사회적 소통을 중요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좋은 서비스와 친근함, 친절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였다. 한편 로마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녹지공간과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근접 거리에 있기를 원하며 공간의 광활함을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놀이 활동 공간, 녹지 공간 등의 응답은 위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지만 유해환경 정비,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환경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 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관지표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할 결과 지표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용은 6개 하위요인과 33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용은 사회참여 영역과 정책기반이 합쳐져 5개 하위요인과 3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부모용은 예비 문항에서 설정한 6가지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나, 아동·청소년용은 사회참여 영역과 정책기반이 합쳐져 5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 참여, 지역주민 유대관계, 정책내용 등 사회적 환경에 대해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용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항의 난이도 조절이나 문항의 표현 수정을 통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 타당화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만을 선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1세-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기보고형식에 적합한 연령부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설문방식이 아닌 면접을 통해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여 욕구와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평가지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점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지역사회가 도달한 상태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

며 향후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성장환경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rtlett, S. (2002). Build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3-9.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concepts and methods*.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 Urbanizing World*. London : Earthscan.
- Choi, C. Y., & Park, Y. K. (2006). Indicator of children's righ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Gearin, E. (2009). The Kindered community : Using a child's perspective to improve urban planning and evaluate neighborhood friendl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aikkola, L., Pacilli, M. G., Horelli, L., & Prezza, M. (2007). Interpretations of urban child friendliness : A comparative study of two neighborhoods in Helsinki and Rome.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7(4), 319-351.
- Horelli, L. (1998). Creating Child Friendly Environments - Case Studies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Childhood* 5, 225-239.
- Hong, S. A., Kim, H. Y., & Ryu, Y. K. (2007). Developing a guideline th the family friendly communitie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wang, O. K., & Kim, Y. J. (2011). Developing a guideline to the youth friendly citi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Jung, K. H., Lee, Y. K., Lee, S. J., & Yoo, S. H. (2008). Developing a guideline to the elder friendliness of highly aged communities.
- Kim, S. J., & Kim, K. H. (2008). Assessment of the city's elder friendliness in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J., Kim, H. J., Kim, J. S., Kim, J. H., Aan, J. H., & Lee, K. J. (2008). The state of korea youth rights I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o, J. E. (2012). The neighborhood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 adults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ungang University.
- Lee, J. Y., & Kang, S. H. (1997). Korean student's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 65-83.
- Lee, J. Y., & Lee, S. L. (1998).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 on the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1), 25-41.
- Lee, J. H. (2007). Direction and task of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 l Geogra*, 13(1), 1-10.
- Lee, J. Y., Hwang, O. K., & Lee, E. J. (2008). Seoul dream tree project I. Seoul welfare foundation.

- Lee, J. Y., Hwang, O. K., Kwun, O. L., & Choi, C. O. (2010). Seoul dream tree project II. Seoul Youth center.
- Lim, H. J., & Kim, H. S. (2011). The state of youth's rights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Malone, K. (2004). UNICEF's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a historical and critical review of a global program to support children in a rapidly urbanizing world, *National Symposium on child friendly cities, Griffith University*, 28-29 Octobe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Guideline of 2011 Poli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esearch center for Social welfare (2006). Key Child Indicators of Korea : 200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NU R&D Foundation (2009). The state of Korea's Childre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of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 S. H., Kim, Y. J., Kim, Y. N., & Lee, J. S. (2010). Indicator of children's rights v.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ewell, P. (2003). *Towards a European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 NSW(2008). *Child Friendly Community Indicators - A literature review*. NSW Commission for children & young people. Queensland : Griffith University press.
- Prezza, M. (2004). Community psychology as a frame of reference for child friendly cities. In Horelli, L., & Prezza, M.(Eds), *Child Friendly Environments : Approaches and Lessons. Espoo, Finland*,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Studies*, 35-53.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aris : OECD.
-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45-58.
- Seo, M. H., Aan. H. A., & Lee, S. S. (2003). Developing of children's rights indicato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eongbuk-Gu Government (2011). Guideline of policy of Child Friendly Seongbuk-Gu.
-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CA : Sage Publication.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 The Korea Council for Children's Right (2001).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of Korea. Hakjisa.
- UNESCO (2002). Growing up in cities. (<http://www.unesco.org>)
- UNICEF (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 New York : United Nations Publication.
- _____ (2001). *Partnership to Create Child Friendly Cities : Programming for Child Rights with Local Authorities*. New York : UNICEF/IULA.
- _____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A Framework for Action*.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_____ (2005).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 Childhood under threat* -. UNICEF.
- _____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_____ (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and Child watch International.
- _____ (2011). *Certification systems and other assessment mechanism for child friendly cities - A Study with a focus on europe -*.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Yoo, H. J., Kim, Y. H., Lee, M. Y., Choi, J., & Moon, H. Y. (2010). *Developing a guideline to the women friendly citie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Zero Population Growth (2001). *Kids Friendly Cities Report Card 2001*. (<http://www.populationconnection.org>)

2013년 4월 30일 투고, 2013년 8월 11일 수정
2013년 8월 13일 채택